

##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12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육에 내어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도시 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과, 성령님에 관해서 말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많은 성령의 역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수사적 질문을 하기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수사적인 질문의 답은 당연히 아니요 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방금 많은 지체들을 가진 몸에 대해 말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몸 안의 각기 제 자리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은 필요한 것이나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행정의 다양성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이 있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이시고, 한 주님이시며,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는 말씀으로 12장을 끝맺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큰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하고 또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더 우수한 제일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나는 수년간 능력 행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나는 사도들의 능력에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또 항상 그것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길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과 병 고치는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나는 이러한 은사들이 나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막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행해졌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한 은사들을 행함으로 받게 되었을 주목과 유명세를 나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이제 봅니다.

수년이 지나는 동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나는 참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았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 월요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도록 초대했을 때 거의 백 명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와 기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아름답게 역사 하신 날이었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여기 서서 주님께 경배 드리며, 그날 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나오게 역사하신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서 함께 경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과 같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교회 안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벽찬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의 일을 꺼내면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나의 사역의 초기 때에 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들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하며, 내가 그것들을 감당치 못했을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자리까지 성숙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심과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 이러한 모든 나타나심들이 완벽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주님! 생각기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신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매우 선명하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의 길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특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러한 색다른 성령의 나타나심보다도 더 큰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13장을 엽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은 여태까지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이며, 개인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깊게 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 이끌려 갔던 경험을 (고린도후서 12:2-4) 이야기했을 때 나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들으며, 이러한 체험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언어가 없는 이곳 지상에서의 어떤 것도 능가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나 다른 어떤 언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도록 허락 받았던 그의 천국 경험을 참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제한하려고 애쓰는 것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심원한 예배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사비나롤(Savinaroll)은 말하기를, 기도가 그 절정에 이르면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할 때, 언어는 그러한 표현을 더 잘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소시키거나, 언어로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나 감사와 찬양의 표현을 위해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한 이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장에서 공부할 이 모르는 언어, 즉 glossa 로 주님께 말할 수 있고, 비록 내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신령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모르는 언어지만 이러한 방언으로 내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13절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들은 모두 glossa 로 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보고는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자가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헬라 단어로 dialektos)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언어였으며, 그들이 공부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은사였습니다. 천사의 말이란 아마도 천국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말할까요? 스웨덴 사람인 나의 장인은 천국에서는 스웨덴말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천국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의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언어로나 천사의 말로 하나님께 말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 의미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울리는 쟁과리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이 이색적인 방언의 은사도 무의미한 소음일 뿐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번역본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비(charity)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클리프(Wycliffe)가 라틴 불가타(Vulgate) 성경(405년 전에 완성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라틴어 단어인 charitos를 번역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라틴 불가타로 번역 했을 때의 헬라 단어는 아가페(agape)였습니다. 그들이 라틴어 charitos로 번역한 이유는 라틴어로 사랑 (amour)이라는 단어는 육적인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에 amour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기꺼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은 라틴 불가타 성경에 charitos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Wycliffe)가 라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 charitos를 직역하여 charity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charity란 단어는 그것의 사용과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비(charity)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에 1불을 넣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나 자선단체 등에 옷들을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의 바뀜으로 인해 자비(charity)라는 단어가 동정한다(sympathy)라는 생각을 갖게되어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합니다.

헬라어 아가페(agape)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3단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헬라인들은 영적인 단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육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약점이 특히 영어에 있습니다. 불란서인들이 불어의 우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러한 약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 영국인들은 너희의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한 단어로만 제한되어 있지?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백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낭만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땅콩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땅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땅콩에 대해 갖는 감정과 내 아내에 대해 갖는 감정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넓은 범위로 묘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육적인 단계의 사랑은 에로스(eros)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신화에 에로스는 그들의 사랑의 신 아포로디테의 배우자였던, 육적인 사랑과 열정의 그리스 여신이었습니다. 헬리우드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들은 헬라어로 에로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수

준의 사랑으로 그것은 항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섹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이것은 성적 관계를 갖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로 필레오(phile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정함,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적인 면이 관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필레오를 말합니다. 늙은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그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 때 필레오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존경, 다정함 그리고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역으로 안으로 들어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헬라인들이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뿌려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하며, 필레오 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보통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순전히 이기적입니다. 필레오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므로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통하며 서로를 잘 이해해 주니,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음악도 좋아하고 같은 종류의 책도 읽고 등등, 우리는 이러한 유사점들이 있어 하며 서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향해 이러한 다정함과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필레오 영역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 받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3장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사랑인 아가페란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푸는 사랑이며 신령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에서 고안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 또는 감정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아가페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단어의 뜻을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이 곳 고린도전서 13장은 근본적으로 헬라어 아가페란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가페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열거합니다 -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아가페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이 아가페에 대한 정의들과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보다도 더 좋은 길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내가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이것은 앞 장에서 언급한 성령의 은사들, 즉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며, 성경 말씀의 영적인 적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기에 자비 charatos 란 단어가 맞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젊은 관원에게 “만일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면 가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만일 모든 일들을 하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없음을 말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뚝에 매달려 불살림을 당하며 기꺼이 순교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이색적인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아가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로, 아가페 4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곳에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삼 세 번을 말합니다. 세 번까지 참은 후에는 가만 놔 두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은혜가운데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여쭙기를, 형제가 같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는 우리가 시도하는 세 번을 훨씬 넘는,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베드로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마태 복음 18:21). 아니, 사 백 구십 번이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란 숫자를 계산하는 수학적이지 아닌 영적인 문제임을 이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거듭 되어지는 오래 참음 후에 오는 온유입니다! 그래, 이 정도 충분히 참았으니 이제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기간 끝에는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보복이나 복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웨익스피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너무 자랑치 말라.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텐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이 갑니다. 그들은 너무나 화사하게 아침합니다. 아가페는 그 자신을 뽐내지 않고, 자신에 대해 허풍 떨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세워나가는 것이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너는 “내 방법으로”하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짐으로 갈 것이며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급히)성내지 아니하며, (급히. 원래 원본에는 없었던 이 말은 킹 제임스 번역본을 번역한 사람에게 의해 더해진 것으로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 ‘급히’ 라는 단어를 더 한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것은 어떤 숨겨진 동기를 찾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숨은 의도 같은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숨은 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내가 설교를 마친 후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hello”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hello”를 뜻했지만, 그 여인은 정말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어떤 미묘한 숨겨진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미묘한 것을 말할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많은 나쁜 일들을 행해 왔는데, 그 사람의 새 차가 사고로 다 부서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낌을 가질 것입니까? 사랑은 불

의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들은 아가페의 특성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절정으로, 8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자리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8절) 성찬식에 대해 말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중대한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뜻의 정의를 읽은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책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책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책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책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책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책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책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책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책은 모든 것을 참으며, 책은 모든 것을 믿으며, 책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내려 가면 이런 것들에 내 이름이 맞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주께서 나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록들에서 얼마만큼 나아왔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을 이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지만, 이러한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어느날 이러한 은사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 신령한 예언의 은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지식의 말씀의 은사) 폐하리라.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또는 완전하여 질 때. 부분적과 온전함을 비교할 때 온전한 때가 올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의 약속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2장 28-32절)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

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내릴 것이며 주님이 오실 그 장엄한 날이 오기 전에 달이 피로 변할 것이고 해가 어둠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어질 요엘의 예언입니다. 요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순례의 길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엔 이러한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도 폐하고 신령한 은사들인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입니다.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는 아직도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온전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았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현재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치 않고 희미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8절에서,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그 분을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기쁨에 찬 소망으로 즐거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온전한 것으로 모든 비밀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는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전경으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대하기를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의 순례의 길을 잘 통과하도록 주신 돕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순례의 마지막 길에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과 함께할 영생의 소망 이것도 있어야합니다.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있어야하며,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13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장 첫 부분에 있는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제 사랑을 따르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